

# 축산업계

소식

## 건축법 시행령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농업 부분과 관련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이를 6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 농업용 건축규제 완화내용

항 목	개 정 령
고정식온실	건축신고대상
축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구역내에서 200㎡(60평)미만 까지 신고로 설치 가능</li> <li>• 간이축사는 100㎡(30평)이상일 경우에도 신고로 설치 가능</li> <li>• 표준설계도에 따라 설치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로 설치가능</li> </ul>
농수산물 판매시설	녹지지역에서 설치 허용 -보전녹지지역은 제외 (전체 녹지지역의 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농지지역 : 농수산물판매시설</li> <li>• 지연녹지지역 : 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 공관장만 허용</li> </ul>
비닐하우스	도시계획구역내 비녹지지역에서는 신고 (연면적 100㎡이상일 경우)

## 농축산물 오염물질함유 실태조사강화 -보사부-

보사부는 농축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농산물의 농약잔류실태 및 중금속함유실태, 축산물의 항균성물질 잔류실태 및 수입농산물의 아플라톡신 함유실태 등을 조사,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올해중 배추 등 32종의 농산물과 Captafol 등 16종의 농약에 대해 6백10건의 시료를 채취, 검사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항균성물질 12종 90개 시료와 수입농산물 50개 시료에 대하여 아플라톡신 함유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검사요원을 충원하고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농지전용, 읍면장에 신고 -7월 1일부터-

농림수산부는 29일 농지전용신고절차를 개선, 농가가 4백50평 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업용시설, 1천평 이하의 양축, 양어, 양식장 등의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을 할때 지금까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해당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농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주민동의서 및 기타법적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입농산물 국산둔갑 판매시 처벌강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농림수산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국가를 명기토록한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통관단계에서는 잘 지켜지나 재래시장에서 유통될 때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처벌을 강화, 유통단계에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바꾸면 식품위생법을 적용,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에서 제외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원산지표시 방안을 마련하여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 '91년도 사료검사결과 발표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91년도 4/4분기 사료검사 결과를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배합사료에서는 6,467건을 검사한 결과 43건이, 단미사료에서는 1,821건 중 69건이 위배되어 과징금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서 양계용 배합사료는 1,663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이 위배되었으며, 위배성분

으로는 주로 단백질부족이 배합사료 21건 단미사료 1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40주년 기념행사 -축산시험장-

축산시험장은 지난 5월9일 이동우 농촌진흥청장, 김정룡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황영구 전임장장을 비롯한 시험장 현직원 및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 40주년 자축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산시험장 40년사」 기념책자배포와 함께 20여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와 모범연구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 한우연구회 정식 출범 -초대회장에 설동섭씨 추대-

한우를 세계적인 고기소로 개량하고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키 위한 한우연구회가 지난 5/15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 초대회장에 설동섭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을 추대하였다.

회원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우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선출도 있었는데 회장에 설동섭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부회장에 송찬원 축협중앙회 부회장, 정근기 영남대 농축산대학장이 선임되었다.